



생활·실천불교 새바람 분다

대구 (下)

대구광역시에는 조계종 외에도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이 각각 협의회를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불교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대구불교는 종단간의 화합을 우선하며, 종단간 협의체인 불교종단협의회를 구성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다.

태고종 태고종 사찰들의 활동도 조계종 못지않게 활발하다. 대구경북총무원 산하에 194개 사찰이 있는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개혁에 영향을 받으면서 대구 지역 사찰들도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총무원장은 2003년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를 교육하는 중무원 부설 범음범패교육원을 개설해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범음범패교육원은 타종단 스님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

또 범음범패교육원을 바탕으로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도 퍼포먼스형식으로 영산재를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지난 3월 말에는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호국 전열 영령 및 신규위해 봉안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앞으로는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매년 정례화 할 예정이다. 7월에는 민족정기를 되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해 민족영산 백두산에서 평화통일 민족화합을 발원하는 백두산 신산재를 거행할 계획이다.

그 외 남구 대명동 청룡사 주지 보성 스님이 경로잔치, 환자위안공연, 무료급식 등 대사회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팔공산 관암사 혜공 스님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로문화운동을 선도하며 불자들이 불화를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천태종 왕성한 포교활동으로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는 천태종 대성사는 1967년 3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대구 신도회를 결성한 후 1981년 창건됐다. 지역에 단 하나뿐인 천태종 사찰이지만 그 활동력은 매우 왕성하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지표 아간을 이용해 관음정진 수행을 하는 대성사는 매월 1일 정기법회에 약 2천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정진을



대구지역의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고 조직적이다. 사진은 영남불교대학이 개최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에서의 미술쇼 공연 모습.

태고종 범음범패 교육원 열고 영산재 전파 천태종 어르신 무료급식·군장병위문 앞장 진각종 중립학교 운영하며 새싹포교 심혈

하고 직장인을 위한 일요법회에는 약 4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다. 그 외 합창, 다도, 꽃꽂이, 서도, 전통 국악회 등 다양한 취미문화활동을 통해 신심을 키우고 있다.

자리아타의 대승불교에 바탕을 둔 천태종 대성사는 군경 장병위문, 불우 이웃돕기, 결식아동돕기, 경로잔치 등 대사회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특히 98년부터 매주 금요일 하고 있는 무료 급식에는 불우 독거노인 800여명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또 어린이 청년 학생회를 결성해 운영하면서 인재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95년부터는 부설 동해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대성불교대학을 개교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다.

진각종 진각종 34개 심인당을 역시 대구불교를 이끄는 큰 축으로 포교, 교육, 복지 등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포교 교육사업에 각별한 진각종의 방침에 걸맞게 중립학교인 심인 중·고등학교와 회락 유치원, 경전 유치원 등 5개의 유치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심인당마다 어린이포교를 위한 자성학교를 열고 있다.

경주 신내의 OK그린 청소년 수련

원과 관광농원인 영농법인 농림촌의 운영도 맡고 있는데, 대만 불광사 보다 큰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중단차원에서 사업도 계획되고 있다. 달성공원 내에서 무료급식을 준비하는 등 복지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노인유료요양시설인 원대동 보훈요양원 운영과 더불어 내년 3월부터 대구시로부터 무료노인요양원을 수탁 운영할 예정이다. 비산동에 들어서게 될 무료노인 요양원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00여평 규모로 물리치료실 등 최신설비를 갖추고 내년 2월말 완공 예정이다.

그 외 포교활동으로 2년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강할찬단의 활동도 주목된다. 또 매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서 화려한 장엄물을 선보이며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올해도 최정심인당에서 제작한 봉황과 용을 선보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신흥사찰 각 종단 사찰(심인당)들의 활동과 함께 1990년대 이후 도심 속 교육·문화·복지포교로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는 신흥사찰들이 나타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대구불교 특징 중 하나다. 남구 봉덕동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수성

구 옥수동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수성구 파동 법암사, 수성구 중동 한마음 선원 대구지원, 남구 이천동 관오사 사와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동구 감천사와 감천복지재단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사찰과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바탕으로 신도회를 조직화 체계화하고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움직임이 빠르고 체계적이어서 수동적이고 정적인 불교계에 역동적인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대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관오사 지도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산중불교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동구 감천사도 감천복지재단을 설립해 지역복지를 이끌고 있다. 1992년 70평 월세 포교당에서 시작한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칠곡, 경산 분원을 케이블로 연결한 인터넷 동영상 화상 강의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병원봉사단, 간병인회, 교도소 봉사회 등 60여개의 신행 봉사 단체가 자비행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법회운영 체계화·조직 정비

정산 스님 (천태종 대성사 주지, 천태종 종의회의장)

천태종 중앙종의회의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지난 2월 대성사에 부임한 후 체계적인 법회운영과 조직 정비를 기획하고 있다. 1년 법회계획과 월별, 주별 세부계획을 세우고 지도교사와 임원진이 매월 호의를 통해 점검 보완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 어린이 학생 청년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포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도, 국악, 꽃꽂이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바탕으로 불교와 접목한 새로운 불교문화예술의 창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범음범패교육원 안정화

범운 스님 (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장, 칠곡 동명사 주지)

지난해 2월 제12대 대구경북총무원장에 취임한 스님은 대사회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내 태고종단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태고종 사찰의 참여율을 높였다.

특히 전 대구경북총무원장이던 현 총무원 부원장 혜공 스님이 초석을 놓은 범음범패교육원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하는 보살계살림 법회를 보은사 앞에서 80년 만에 봉행했다. 지역 원로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총무원 원로회의도 결성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포교 진두지휘

진산 정사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희락심인당 주교)

진각종 대구교구청의 수장인 진산정사는 진각종 종의회의장을 역임하면서 동시에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불법인연을 맺게 됐다는 진산 정사는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3대가 성직자로 화합활동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한평생을 집을 사고 돈을 버는 일로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안타까워했다. 또,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종단간 화합을 강조했다.



승가교육도량 설립 서원

우학 스님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은 사람을 길러내고 정법을 가르쳐 타성불교를 깨야한다는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도심 속 승가 교육도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유치원봉사자 끝나면 유치원건물에 선원, 강원, 율원 등을 두어



도심 속 스님들의 종합수행도량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 7월경에는 노인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해 교육, 수행, 복지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뉴욕에 사무소를 개소한 스님은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아파트에 불교대학 설립

돈관 스님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산중불교를 벗어나 현실적인 포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96년 신흥아파트지역에 포교당을 열고 2년제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치마불교와 노인 불교를 탈피할 것을 주장하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주력해왔다. 또 다도 서예 한자, 외국어 강좌 등의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현재 지하1층 지상 4층의 불광종합복지관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님은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21세기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국제 불교학회의 유치도 구상중이다.



포교 네트워크 구축

실상 스님 (법령사 주지)

1990년 대구시 수성구 파동 2만3천 평의 산기슭에 17평 천막법당으로 문을 연 스님은 100명의 고승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색고좌법회를 14회째 개최했으며, 지난해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2800평의 불교종합복지관 착공에 들어갔다.

불사가 완공되면 도량을 완전 개방하고 5000평 대지를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칠곡 연흥사, 달서구 법암사, 서울 동광사, 합천 부계수원원을 연결하는 포교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적인 신행 복지 도량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지역복지 포교 이끌어

지도 스님 (관오사 주지)

스님은 불교복지단체가 전무했던 대구지역에 불교사회복지회를 설립하여 지역복지를 이끈 장본인이자, 1990년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해 나눔후원회를 결성하고 복지활동 근거지로 삼은 안정적인 포교당이 필요해 관오사를 창건했다. 97년 대구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은 불교사회복지회는 현재 등록자원봉사자만 1800명, 산하기관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여래원, 불교사회복지대학 등 15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복지계를 리드하고 있다.



지난호(528호) 7면 '지역 불교현장을 가다' 대구(上) 편에서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가운데 송림사 주지 성덕 스님의 사진이 잘못 실렸기에 다시 사진을 실어 바로 잡습니다. 스님께 사과드립니다.

고침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영을 써주 드립니다.

					
달마 1호	달마 2호	달마 3호	소원성취	건강부	사교방지

달마카드
소재: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50mm x 75mm
50점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저울이	달마 6호	달마 8호	달마 10호